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산재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490)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3년 9월 12일

한 배달 기사가 배달 중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 차량과 충돌.



2023년 9월 14일

충돌 후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



2024년 1월

유족이 산재 신청했지만 공단은 "신호위반이니 업무 재해 아님"이라며 거절.



2024년 12월

법원은 "과로와 업무상 상황에서 생긴 사고"라며 유족 손을 들어줌.

쟁점: 이건 과실일까, 과로 사고일까?

근로복지공단 주장

신호를 위반했으니 사고는 본인의 잘못. 법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

유족의 주장

배달이 너무 많아 피곤했을 뿐, 일부 실수였을 뿐이며 업무 중 사고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요약

1. 배달 특성상 급박함 인정

업무 특성상 빠르게 이동해야 했고, 과로 상태일 가능성 높음.

2. 하루 32건 배달

평균 시간당 4건 이상 배달하며 피로 누적했을 것.

3.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는 아님

집중력 저하 상태에서 신호를 못 봤을 가능성이 높음.



국가의 거절은 잘못!

법원은 이 사고가 과로와 배달 업무 중 생긴 것이라며 유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